

천안의 자랑 천안배와 천안거봉포도

1 하늘그린 천안배 2020년산 첫 수출기념식
 2 하늘그린 천안배 3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 올금유통센터에서 천안시와
 천안배원예농협 관계자들이 충남 천안의
 대표 농특산물인 하늘그린 천안배 미국 수출
 선적식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은 예로부터 삼남 분기의 요충지로 교통이 발달하고 애국지사가 많이 배출된 충절의 고장이며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지역이다. 자연재해가 적어 농·특산물도 풍요로운 곳으로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천안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은 천안배, 거봉포도, 오이, 멜론, 호두, 버섯, 홍타령 쌀 등이다. 이 특산물은 천안시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과 홍타령 쌀 공동상표를 붙이고 전국으로 판매한다. 천안배와 거봉포도는 세계로 수출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요즘 한창 수확 중인 천안배와 천안거봉포도에 대해 소개한다.

천안시 대표 농·특산물인 하늘그린 천안배는 1909년부터 성환읍 왕림리 지역에서 재배를 시작해 110여년의 긴 역사를 자랑한다. 주 재배지역은 성환읍 중심으로 직산, 성거, 입장 지역으로, 801 농가가 947ha에서 재배해 연간 54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전국 3대 배 주산 단지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전국에서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천안배는 2019년 미국 등 20여개국에 총 6천249t을 수출해 1천774만9천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대표적인 효자 품목이다. 지난 9월 17일에는 천안배원협유통센터에서 미국 수출 선적식(13.6t, 4만5천달러)을 가졌다. 천안시는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 지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낼 계획이다.

천안 거봉포도는(595농가 471ha에서 180억원 상당의 포도 생산) 입장, 성거, 직산 지역의 광활한 구릉지대에서 비가림재배, 봉지씌우기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으로 재배, 포도알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각종 영양분이 풍부한 고품격 과일로 포도의 여왕으로 불린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소화촉진과 피로회복에 좋으며 미네랄이 풍부하고 비타민, 칼슘, 칼륨, 철분 등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로부터 건강·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거봉포도는 과일 특성상 수출이 어렵지만 천안포도영농법인에서 주도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16년 중국으로 첫 수출을 시작해 2019년에는 109t, 91만천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올해 8월에는 호주로 수출선적식(4t 3만3천달러)을 가졌다.

6월에는 입장휴게소 명칭을 입장거봉포도휴게소로 변경하면서 천안 거봉포도의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드라이브스투를 활용한 거봉포도 홍보 및 판촉전으로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와 천안시 농·특산물 하늘그린 위상을 제고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농업인 소득증대와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 및 홍타령 쌀 홍보 판촉을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천안시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